「한국지방행정학보」 제18권 제2호(2021. 8): 69-92
DOI https://doi.org/10.32427/klar.2021.18.2.69

공공서비스동기가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
- 중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act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on Voluntary Activities
- Based on Chinese College Students -

담 효 니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석사 – 주저자)
류 근 필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 공동저자)
문 성 진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교신저자)

Abstract

Xiao-ni Tan / Geunpil Ryu / SEONGGIN MOON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a recent growing trend of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among Chinese college students. It seeks to understand what factors can affect volunteer participation. Particularly, it focuses on 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and investigates empirically how PSM can influence volunteering. To examine, we conducted a survey questionnaires administered to students registered in three main universities (Chongqing University, Chongqing Normal University, and Chongqing Medical University) in Chongqing, China. Based on the survey data, this study constructed an OLS regression model to estimate the effect of PSM on volunteer participation. After controlling for factors such as demographic factors, social capital, religious activities and socialization processes in the family, the empirical result showed that PSM is partially significant in terms of affecting volunteer participation.

A PSM dimension (sacrifice) is statically significant and the other dimensions (sympathy and civic duty) are not significant. In addition, religious activitie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volunteering.

Keywords: public service motivation, social capital, voluntary activities

---

* 본 논문은 담효니의 석사학위논문(공공서비스동기가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 중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2018)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I. 서 론

현대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은 여가활동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 및 목표의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봉사활동의 참여를 통해 가치관 및 인생관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설경란, 2002). 보다 넓은 의미에서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을 시민사회 활동으로 확대한다면 봉사 활동은 정부 기능의 보완적 측면에서 정부 및 시장의 실패 보완, 빈부격차 완화, 사회적 갈등 축소 및 조화를 촉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비영리단체(NGO) 등과 함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생의 자원봉사 활동은 타 집단보다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기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안현주, 2008). 대학생 자원봉사자는 다른 자원봉사자에 비해보다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활동이 가능한 인력으로 규정되고 있으며(유정호, 2015), 실질적으로 대학생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중요한 인적자원이 되고 있다(이선주, 1996).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질적으로 보면 활동의 지속성이 낮고, 중도 탈락률이 높아 다양한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강정희, 2009).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선행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첫째, 공직서비스정신이 대학생의 직업분야(공공분야와 민간분야)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고길곤·박치성, 2010). 실질적인 봉사에 영향에 관한 연구는, 사회봉사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실태 및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의 사회봉사와 연계된 봉사기관에서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자원봉사 담당자를 통한 활성화 연구 등이 존재한다(정소희,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실증적 연구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정신이 어떻게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는지,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공봉사동기가 실질적인 봉사행동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하며, 행정학 분야에서 대학생이 실제 어떤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자원봉사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 충칭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동기와 자원봉사활동의 영향관계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에서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층의 자원봉사활동 관심 및 참여가 증폭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중국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주요 변수로 공공서비스동기와 그 외

다양한 요인(인구통계학, 사회자본 등)을 설정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 및 행태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중국의 공공서비스동기를 한국에 소개하는 연구로서 그 학문적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한국과 중국의 공공봉사동기 모형의 측면에서 비교연구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 연구는 한국적 맥락에서 행정학과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의 확산과 지속적인 참여를 도모하는 데 학문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자원봉사활동과 공공서비스동기 개념 이해

자원봉사라는 용어는 자유의지라는 뜻의 라틴어 “voluntas”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만식, 2010), 자원봉사의 의미는 다양하게 정의된다. Smith et al.(1999)는 자원봉사활동을 ‘보상, 강제보다는 기본적으로 정신적 이득을 지향하며 이루어지는 인간적 행동’이라고 정의하며, Manser & Cass(1976)는 ‘개인이 선택한 복지기관을 통해 활동하고, 또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려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의 자유와 민주적 과정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위와 같이 선행연구는 연구의 목적 및 이론에 따라 다양하게 자원봉사를 정의하는데, 대체로 일관된 자원봉사 개념은 ‘금전적 대가나 보상 등을 바라지 않고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위 정의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활동 유형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자원봉사자 개인의 측면을 강조하게 되면 자발성과 주체성, 자원봉사의 활동 목적 및 내용을 강조하면 공익성 및 복지성, 직업측면을 강조할 경우에는 무보수성, 무급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외 기타로는 지속성, 교육성 등으로 그 특성과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박태영, 2004). 대체로 기존의 분류를 관철하는 특징으로는 자발성과 무보수성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은 개인의 측면에서 자발/비자발성을 나누고 단지, 보수의 유무 특징만이 존재나, 이러한 활동에서 도출되는 사회적 측면의 유익성, 공익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발성과 무보수성을 보다 공익의 의미를 연계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의 목적·내용 측면에서 이타성과 공공성의 측면을 강조하고 분석하려고 한다.

봉사활동 참여의 원인에 대하여 다양한 이론이 존재한다. 첫째, 경제적 관점으로 봉사활동과 관련해 비용-편익을 고려한다고 설명한다. 사람은 자선행위와 관련된 혜택이 비용을 초과하면 자선사업을 지지한다(Monroe, 1994). 둘째, 사회적 관점에서 사회 압력을 중시하고, 자선사업에서 사회적 규범과 기대의 역할(Frumkin, 2006) 때문에 자선행위를 한다. 더불어, 자선은 개인의 도덕적 가치와 기준을 통한 이타적 행위와 동정심, 타인의 복지(Monroe, 1994; Frumkin,

2006)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관점을 살펴보면, 경제적 관점에서는 자선행위라는 것이 결국, 개인의 이익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동기를 말하고, 사회적 관점은 사회적 위치와 시각에 따른 이타심과 타인의 복지 등을 강조해 각각 자원봉사에 대한 설명이 하나의 측면만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이라는 모두의 이익과 함께 이타심, 복지 등을 강조하기 위해 개인의 공공서비스 동기를 설명하는 이론을 활용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살펴보려고 한다.

공공서비스동기이론(Public Service Motivation Theory)은 Perry & Wise(1990)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공공부문 종사자와 민간부문 종사자는 각기 다른 동기를 갖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임낙균, 2018). 공공서비스동기는 공익 실현을 지향하는 이타적인 동기로서 이에 대한 연구는 오랜 역사를 지니지 않았다. 그러나 공공서비스동기가 주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무동기에 대해 관심이 대두된 1960년대부터 행정학이나 조직학의 연구 분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양형석, 2018).

이러한 공공서비스동기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살펴보면, Perry & Wise(1990)는 '공공조직과 관련된 동기에 반응하는 개인의 기본적인 경향'으로 정의하며, Crewson(1997)도 '공무원들이 타인에게 유익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로 이해 성취감을 느끼는 직무 특성적 가치'로 정의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나누는 경향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Brewer & Selden(1998)는 '개인이 의미 있는 공공봉사를 수행하려는 동기'로 정의해 대상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정의한다. 그리고 보다 공익의 의미를 강조한 Rainey & Steinbauer(1999)는 '헌신적이며 자기희생적인 방법을 통해 공익 증진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일반적인 동기'라고 정의한다.

이처럼 공공서비스동기는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종사자들 간에 상이한 가치체계를 갖고 있다는 가정에 바탕을 둔다(이근주, 2005). 이는 초기 공공서비스동기가 공직자를 초점으로 공공부문 종사자는 민간부문과 다르게 자신의 일을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려는 열망에 의해 동기 부여되고, 외재적 보상보다도 내재적 보상을 우선시하는 윤리에 의해서 특징지어진다는 것이다(Crewson, 1995).

하지만, 점차 사회가 다원주의가 되어갈수록 공공, 공익에 대한 개념이 다양해지고, 공익을 행하는 주체가 시민사회, 비영리단체 등에서도 나타남에 따라 공공서비스동기의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즉, 공공서비스동기의 개념은 이제 정부나 공공부문에서만의 동기에 대한 설명이 아닌 더 확장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타인을 위하여 봉사하고, 사회의 안녕을 위한 동기와 행동'으로 정의(신동국, 2017) 할 수 있다. 즉, 이 연구는 자원봉사활동을 다양한 분야 중 하나로 보고, 타인을 위한 봉사, 사회 안녕 추구의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 도출

이번 연구와 관련 있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이다.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존재하며 사회·경제·심리·정책 등의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사회나 정책학 차원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연구는 대체로 영향요인이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이성록, 2001; 설경란, 2002; 이용순, 2007; 안현주, 2008; 유정호, 2015)가 가장 많고, 주로 연령, 성별, 교육 정도, 소득 수준, 종교, 가치관, 가족 구조, 그리고 생명주기 등이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연구에는 인적자본론, 사회자본론 등 다양한 이론과 개념을 활용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 활동의 내재적 동기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errard(1981)의 연구는 미국의 자원봉사자 총 500명을 대상으로 본인의 자원봉사 동기에 관해 조사·분석하여, 자원봉사의 동기를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Fitch(1987)는 Gerrard(1981)의 연구를 기반으로 자원봉사의 동기는 보다 더 다양한 동기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책임 동기 즉,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서 환원한다는 사회적 책임 동기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Parker(2008)는 자원봉사자들의 동기를 네 가지 측면으로 분석한 결과, 이타성(자신의 시간과 정력을 희생하는 것), 이기성(봉사활동을 통해 일정한 보답을 받는 것), 종교 신앙(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확산하는 것), 여가산업(봉사활동을 일종의 취미활동으로 간주하는 것)이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로 분류되었으며,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다.

중국의 학자들도 자원봉사활동 동기에 대해 탐색·분류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高金金(2009)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대학생 자원봉사자 총 27명 인터뷰를 통해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를 주로 '체험', '호기심', '자아실현', '사회 환원' 순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莫文琪(2007)는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동기에 대해 분류하고 정리하였다. 자아실현, 교육 기회, 친목, 사회 환원 이러한 4가지 요소는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주요 동기이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卓彩琴(2007)는 '질적 연구'를 활용하여 이타적과 이기적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동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타적 동기를 갖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들도 봉사활동에서 오해를 받고 퇴출당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실현 신념을 갖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다른 동기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쉽게 견뎌 냈다. 王昱(2011)는 대학생 총 2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중요한 동기 중의 하나로 공리성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개인적 경력은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 했으며, 대학생이 자원봉사활동에 처음 참여하는 이유는 피동적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책임과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재미가 봉사활동을 지속시키는 이유가 되었다.

〈표 1〉 선행연구 연구 검토

연구자		연구내용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선행연구	이성록 (2001)	사회 심리적 요인(기대충족도, 인정 보상의 공평성, 만족도 등)은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의지와 강도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설경란 (2002)	자원봉사활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특성, 심리적 동기요인, 조직관련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용순 (2007)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향후 지속성 예측에 관한 연구에서는 개인특성요인, 활동상황 특성요인, 대인관계 만족요인, 봉사활동 만족요인이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안현주 (2008)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별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 대인관계 요인, 보상적 요인, 기관관계 요인 등으로 구분하였다.
	유정호 (2015)	자원봉사의 동기에 대한 조사하여 사회적 경험차원, 자기계발을 위해서, 종교적인 이유, 인간관계 등 자원봉사자의 동기로 제시하였다.
공공서비스봉사 동기에 관한 선행연구	Crewson (1997)	공무원들의 태도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공서비스동기와 조직몰입이 긍정적인 관계임을 밝혔다.
	Brewer & Selden (2000)	공공서비스동기가 조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Bright (2008)	공무원들이 가진 공공서비스동기 높을수록 직무만족 수준도 높아지고 이직경향도 낮아짐을 밝혔다.
	주영미 (2014)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동기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노상일 (2015)	공공서비스동기가 조직몰입,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했다. 공공봉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공공서비스동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임낙균 (2018)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동기와 사회자본의 관계 분석하였다.

둘째, 공공서비스봉사 동기에 관한 연구(Crewson, 1997; Brewer & Selden, 2000; Bright, 2008; 주영미, 2014; 노상일, 2015; 임낙균, 2018)이다. 공공서비스봉사는 개념의 포괄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학자마다 여러 분야, 여러 방법과 목적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공공서비스동기를 다양한 척도를 활용해 측정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독립변수로서 공공서비스동기가 다양한 변수와 차원(개인, 조직, 사회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왔다. 다음의 〈표 1〉은 이 연구와 연관이 있는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여 보여준다.

공공서비스동기와 자원봉사활동은 이론적으로 상호 관련성이 존재한다. Perry & Wise(1990)은 공공서비스 봉사 동기는 규범적, 이성적, 정서적 측면에서 기인하는 개인의 내재적인 성향(Predisposition)이라고 주장한다. 이성적 동기가 작동하는 경우에는 봉사활동이 개인의 이익(예: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대학생이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규범적 동기는 개인의 가족이나 학교 교육으로부터 가치관이나 규범을 배우는 사회화 과정으로부터 공공의 봉사를 중요한 가치적 요소로 갖게 되며(Perry et al., 2008), 이러한 내재적인 가치가

많을수록 공공봉사활동을 하려는 동기를 많이 갖게 된다. 예를 들면, 부모님으로부터 다문화 사회의 중요성을 배우고, 다양한 문화의 존중을 배웠다면, 이러한 내재화된 가치관으로 인하여 다문화센터에 봉사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측면에서 동기는 정서적 반응에 따른 개인의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려운 학생들을 마주하면서 이러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Perry & Wise(1990)은 공공서비스동기를 개인의 욕구충족(Needs-Fulfillment)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한다. 개인은 위의 세 가지의 동기를 충족하기 위해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면, 한 대학생이 취업에 대한 강한 동기가 있고 봉사활동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경우, 이러한 개인의 욕구(이성적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석하게 된다. 규범적 동기 측면에서는, 다문화 사회의 중요성에 대한 강한 가치관을 지닌 개인은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의 수준이 개인이 요구하는 수준에 비하여 낮다고 인지할 경우, 다문화 가치의 실현을 위해 다문화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다문화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측면에서 동기는, 위에서 제시한 사례처럼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높은 동정심(Compassion)이 발인하여 학생들의 어려운 상태를 돕고자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결론적으로 공공서비스동기와 자원봉사활동은 내재적 동기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봉사활동을 연구한 Parker(2008)는 개인의 봉사활동의 동기적 요인으로 이타성, 이기성, 종교적 믿음, 취미생활로 구분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Gerrard(1981)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의 내재적 동기를 강조하였다. 공공서비스동기 이론의 경우 세 가지 측면(규범적, 이성적, 정서적)에서 개인의 내재적 동기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공공봉사동기와 자원봉사활동의 동기적 요소를 비교할 때, 첫째, 공공서비스동기의 이성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동기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봉사활동의 이기성과 관련이 있다. 둘째, 규범적 측면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내재적 동기에서 '종교적 믿음'과 '사회적 책임'은 개인의 가치관적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동기의 규범적 요소와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동기의 정서적 요소는 봉사활동의 내재적 동기인 동정심과 많은 유사성이 있다.

공공서비스동기와 봉사활동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핸 실증적 연구는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예를 들면, Clerkin, Paynter, & Taylor(2009)의 연구에 따르면 공공서비스동기의 4개 하위개념중 시민의 의무(Civic Duty)의 측면이 봉사와 기부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Perry et al.(2008)은 공공봉사활동 경험이 공공서비스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으며, 가족내에서 사회화, 종교활동, 그리고 이전의 봉사활동 경험 등이 마찬가지로 공공서비스동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Fink(1986)는 자원봉사자의 공공서비스동기가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원봉사행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Clary et al. (1998)는 자원봉사자의 참여 동기와 개인 수익 사이에

균형이 맞는지, 자원봉사활동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지, 공공서비스동기가 지속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여 공공서비스동기와 자원봉사활동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결론적으로 Perry & Wise(1990)은 공공서비스동기를 '공공조직과 관련된 동기에 반응하는 개인의 기본적인 성향'으로 정의하였으며, 공공정책 결정에 대한 관심(attraction to policy making), 공익에 대한 몰입(commitment to public interest), 동정심(compassion), 자기희생(self-sacrifice)의 네 가지 하위차원의 개념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Perry, 1996).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공공봉사동기의 세 가지 측면은 자원봉사활동의 내재적 동기에서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 특히 공공봉사동기는 사회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봉사동기가 선행요소로 판단되어 이 연구에서는 공공봉사동기가 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종합하면, 자원봉사활동에 공공서비스동기를 활용하는 국내·외의 연구들은 다양하게 진행중이다. 이러한 공공서비스동기와 자원봉사활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많은 학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공공서비스동기가 어떻게 작용하고, 공공서비스동기가 자원봉사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해석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하나의 단일한 동기만을 활용해서 변수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이고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공공서비스동기와 자원봉사활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체로 개인의 자원봉사활동 동기를 다양하게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타심, 공익에 대한 동기의 설명과 유형 분류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공공서비스동기를 활용한다.

가설1. 대학생의 공공서비스동기가 자원봉사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대학생의 동정심은 자원봉사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대학생의 헌신은 자원봉사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대학생의 시민의 의무는 자원봉사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공공서비스동기와 자원봉사활동의 영향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자료수집방법으로 설문 조사를 활용하였다. 표본은 중국 충칭에 소재하고 있는 충칭대학교, 충

칭사범대학교와 충칭의과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으로 모집단을 규정하고, 임의표집방법을 활용하고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2017년 12월에 설계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정교화 하였으며, 조사는 2018년 1월~3월까지 온라인 및 실제 조사를 활용해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00부를 회수하였다. 분석에는 회수한 200부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고 결측치가 많은 22부를 제외한 총 178부의 설문지를 실증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 지역으로 중국 충칭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편의성으로 연구자가 충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다. 둘째, 충칭은 중국의 4개 직할시 중 하나로 중국 내 정치·경제적 지위가 높은 편에 속한다. 셋째, 충칭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대학교가 많고, 또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조사하기에 용이하다.

먼저,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에 사용된 대상자의 수는 총 178명으로 여학생이 127명(71.3%), 남학생이 51명(28.7%)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많다. 학년별로는 4학년이 38.8%로 가장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3학년이 23.6%, 2학년이 19.7%, 1학년이 18% 순으로 4학년이 가장 많았고, 1학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표 2〉에 나타나있다.

〈표 2〉 설문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 수 명	항 목	빈 도(명)	백 분 율 (%)	유효퍼센트(%)
성별	남 자	51	25.5	28.7
	여 자	127	63.5	71.3
	계	178	89	100
학년	1학년	32	16	18
	2학년	35	17.5	19.7
	3학년	42	21	23.6
	4학년	69	34.5	38.8
	계	178	89	100

그 다음 조사대상자의 지난 1년 동안의 비영리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현황(참여여부와 참여정도)을 살펴보면, 기관이나 단체에 따라 결과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첫째, 종교기관/단체에서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6명으로 25.8%로 차지하고 있으며, 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132명으로 74.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교기관/단체에서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 봉사시간이 1-19시간은 9%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고, 20~39시간은 7.9%, 40~79시간은 4.5%, 160시간 이상은 2.8%로 나타났으며, 80~159시간은 1.7%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교육기관에서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38명으로 77.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40명으로 22.5%로 차지하고 있다. 학교/교육기관에서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 참여 정도로 1-19시간은 34.3%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고, 20~39시간은 20.2%, 80~159시간은 8.4%로 나타났으며, 40~79시간과 160시간 이상은 각각 7.3%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복지 기관/단체에서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22명으로 68.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56명으로 31.5%로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 기관/단체에서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 1-19시간은 32.6%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고 20~39시간은 20.2%, 40~79시간은 12.4%, 80~159시간은 2.2%로 나타났으며, 160시간 이상은 1.1%로 나타났다.

넷째, 국가기관/비영리단체에서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87명으로 48.9%로 차지하고 있으며, 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91명으로 51.1%로 차지하고 있다. 국가기관/비영리단체에서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 1-19시간은 28.7%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고 20~39시간은 13.5%, 40~79시간은 5.6%로 나타났으며, 160시간 이상은 1.1%로 나타났다.

다섯째, 국제기관/기구에서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6명으로 25.8%로 차지하고 있으며, 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132명으로 74.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기관/기구에서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 1-19시간은 12.4%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고, 20~39시간은 6.2%, 40~79시간은 4.5%, 80~159시간은 1.7%로 나타났으며, 160시간 이상은 1.1%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공식적 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상황 특성

변수	항목	종교기관/단체		학교/교육기관		사회복지 기관/단체		국가기관/비영리단체		국제기관/기구	
		빈도(N)	비율(%)	N	%	N	%	N	%	N	%
참여 여부	그렇다	46	25.8	138	77.5	122	68.5	87	48.9	46	25.8
	아니다	132	74.2	40	22.5	56	31.5	91	51.1	132	74.2
참여 정도	1-19h	16	9.0	61	34.3	58	32.6	51	28.7	22	12.4
	20-39h	14	7.9	36	20.2	36	20.2	24	13.5	11	6.2
	40-79h	8	4.5	13	7.3	22	12.4	10	5.6	8	4.5
	80-159h	3	1.7	15	8.4	4	2.2	0	0	3	1.7
	≥160h	5	2.8	13	7.3	2	1.1	2	1.1	2	1.1

2. 측정도구 및 분석 방법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연구 목적은 중국 대학생을 대상

으로 공공서비스동기가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변수 설정을 위해 선행 연구에 기반을 두었는데, 우선 Perry et al.(2008)의 연구는 종교적인 활동, 가정 내 사회화 과정, 이전 봉사활동 경험이 봉사활동과 공공서비스동기와의 관련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Clerkin, Paynter, & Taylor(2009)에서도 공공서비스동기와 봉사 및 기부활동의 관계를 추정하면서, 인구학적 변수 외에도 사회화 과정, 정치적 성향, 봉사활동 경험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공공봉사동기를 독립변수로, 봉사활동의 참여정도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였으며, 통제변수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인구학적 변수, 사회화 과정, 사회적 자본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학적 변수 외 총 4개의 변인(공공서비스동기, 사회화 과정, 사회자본, 공식적 봉사활동 참여), 4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다문항 리커트 척도(multiple-item Likert type)를 활용했다. 아울러, 측정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어로 개발된 설문을 중국어로 번역한 다음,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았다.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개념들을 보다 명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측정 문항들의 신뢰성 및 타당도 검토를 하였으며, 전문가의 피드백을 근거로 일부 문항들은 제외하고 수정되었다. 이 연구의 각 문항은 '①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 '⑤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부여하였으며, 이를 평균 점수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공공서비스동기가 높다(주영미, 2014)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개념들에 대한 측정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서비스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 및 측정문항을 활용하였다. 공공서비스동기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려는 동기의 내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Perry & Wise(1990)의 경우에는 공공서비스동기를 규범적, 정서적, 합리적 동기 세 가지로 구분하였고, 이를 공공정책 결정에 대한 관심, 공익에 대한 몰입, 동정심, 자기희생의 네 가지 하위차원의 개념으로 구성하여 설명하였다. 이후 Perry, et al.(2008)의 논문에서는 공공서비스동기를 '동정심', '헌신', '시민의 의무'의 세 개의 하위 개념으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분류와 기준을 활용하여 실제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공공서비스동기에 대한 문항은 '동정심', '헌신', '시민의 의무'의 3가지 하위요소를 포함한 총 17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그 다음 충칭지역의 대학생이 지난 1년 동안 비영리기관 등을 통해서 하는 자원봉사활동 정도를 측정하였다. 대학생의 공식적인 봉사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봉사활동 조직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분류하였다. 공식적 봉사활동으로는 종교기관/단체, 학교/교육기관(도서관 포함), 사회복지기관/단체(장애인, 노인 등), 그 외 국가기관/비영리단체, 국제기관/기구로 분류하였다.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이 1년에 봉사 시간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1) 봉사한 경험이 없음, (2) 1~19시간, (3) 20~39시간, (4) 40~79시간, (5) 80~159 시간, (6) 160시간 이상.

통제변수는 대학생의 기본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는 학년, 성별 등의 인구학적 변수 외에 종교 활동 및 가족 내 사회화 과정 정도와 사회참여, 개인 간 신뢰 정도,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

도 등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여 통제하였다. 인구학적 변수에서 학년의 경우 조사당시 대학생활 몇 년차인지를 조사하였으며, 성별은 남·녀의 범주형 선택항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사회의 문화 및 분위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이 장려되거나 주변 환경이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참여 및 개인과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를 나타낼 수 있는 사회자본 요인 들을 측정하여 통제하였다. 사회자본은 크게 1) 사회적 활동을 동아리 참여 정도라는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측정하였다(1=해 본적이 없다, 2=드물게, 3=한 달에 두세 번 정도, 4= 일주일에 한번 정도, 5=일주일에 한번 이상). 2) 개인에 대한 신뢰감은 아래와 같이 두 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1)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만하다. 2)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도움을 주고자한다. 마지막으로 3) 공직기관 신뢰도는 정부와 비영리단체의 신뢰도를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사회화 과정이 공공봉사동기모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Perry, 1996) 사회화 과정을 통제하였는데, 종교활동에 대한 참여를 네 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예: 종교의식에 참여 등). 또한 가족내 사회화 과정을 측정하기 위해 네 개 문항을 이용하였는데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1)부모님이 자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 2) 가족끼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도움을 주고받았다, 3) 부모님은 모르는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있을 때, 너무 관여되지 않도록 하셨다. 4)부모님은 도덕성을 자주 강조하셨다.

아울러, 이러한 실증분석을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했으며,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 등을 사용하여 각 변수의 분포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Cronbach's α 신뢰도 분석을 통해 변수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공공서비스동기, 공식적 봉사, 통제변인들 간의 관계는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해 연구에서 다루는 변수의 다중공선성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동기가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주요 독립, 종속변수와 함께 통제변수를 활용하여 변수 간 영향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상관관계 분석

이 연구의 변수들 간 상관관계 결과는 첨부의 〈표 2〉와 같다.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종속변수인 '공식적 봉사활동 정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종교 활동(r=.433, p〈.001), 사회자본(사회참여)(r=.296, p〈.001), 공공서비스동기(헌신)(r=.211, p〈.01)순으로 공식

적 봉사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즉 종교 활동과 공식적 봉사는 99% 신뢰수준에서 가설에서 예측한 것과 같이 높은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사회자본(사회참여)은 99% 신뢰수준에서 역시 가설에서 예측한 것처럼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공공서비스동기(헌신)가 1% 유의수준에서 역시 가설에서 예측한 것처럼 정(+)의 관계를 보였다.

2.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이 연구에서는 모든 측정변수의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회전방식은 하나의 요인에 높게 적재하는 변수의 수를 줄여서 요인의 해석을 용이하게 해주는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채택하였다(제단화, 2016).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요인과 문항의 선택기준으로는 고유 값(eigen value)을 기준으로 1.0 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기에 이 연구도 활용하였다. 요인분석에서 요인 적재치는 변수들의 중요도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수치가 낮을수록 중요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Kaiser-Meyer-Olkim(KMO)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주영미, 2014). 이 값을 통해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적절한지 파악할 수 있다.

설명적 요인분석(Explanatory Factor Analysis) 결과, 기대한 것처럼 공공서비스동기에 대한 요인은 3개로 추출되었으며, 전체 설명량은 약 61.073%였다. 공통성은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로, 공통성이 낮은 변수는 요인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신소라, 2015; 송지준, 2015). 일반적으로 공통성이 0.4이하면 낮다고 판정한다. '시민의 의무(1.10)' 문항의 공통성은 0.214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문항을 제외하고 요인분석을 다시 실행하였다. 아울러, 요인으로 적절하게 분류되지 않은 문항 '동정심(1.1, 1.2)', '시민의 의무(1.11, 1.12)'도 제거한 후 최종 요인분석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대체로 고유값은 1.0 이상을 나타났고, 요인적재량은 모든 문항에서 0.4이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요인분석 결과는 공공서비스동기에 대한 타당도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연구에서 활용하는 요인들의 신뢰도를 검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활용하였다. Cronbach's alpha 신뢰도 분석 결과를 마찬가지로 〈표 4〉에서 제시하였으며, 변수들의 Cronbach's alpha 값을 살펴보면, 동정심 .749, 헌신 .725 시민의 의무 0.733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사화자본은 0.691, 종교 활동은 0.790, 가족 내의 사회화 과정은 0.720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 연구의 변수들의 신뢰도가 대체로 높으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4〉 공공서비스동기 요인 및 신뢰도 분석결과

항목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요인1	요인2	요인3	
시민의 의무1.17	.819	.100	-.042	.733
시민의 의무1.14	.788	-.006	.131	
시민의 의무1.15	.771	.080	.138	
시민의 의무1.13	.766	.206	.026	
시민의 의무1.16	.747	.101	-.130	
헌신1.7	.116	.839	-.076	.725
헌신1.6	.129	.744	.181	
헌신1.8	-.015	.740	.185	
헌신1.9	.252	.543	.300	
동정심1.3	.073	.053	.835	.749
동정심1.5	.175	.164	.828	
동정심1.4	-.158	.171	.559	
고유치(eigen value)	3.186	2.230	1.913	
분산설명비율(%)	26.551	18.582	15.940	
누적분산설명비율(%)	26.551	45.133	61.073	

3. 회귀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동기, 사회자본, 종교 활동, 가족 내의 사회화 과정과 공식적 봉사 간의 영향관계에 관한 가설의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은 가변수(dummy)화하여 통제변수로 처리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 변수(학년, 성별)를 독립변수로 투입했고, 종속변수인 '공식적 봉사'의 횟수를 투입했다. 2단계는 '종교 활동'과 '가족 내의 사회화 과정'을 독립변수로 추가로 투입했다. 3단계는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자본'을 추가하였으며, 마지막 4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공공서비스동기'를 추가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위하여, 모델 1에서는 우선 인구학적 변수(학년, 성별)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고, 모델 2에서는 종교활동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을 통제하였으며, 모델 3에서는 사회문화적 및 사회자본 요인 통제하기 위해선 사회참여의 장려, 개인간 신뢰, 공적기관 신뢰 등을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델 4에서는 이 연구의 핵심인 공공봉사동기 요인인 동정심, 헌신, 시민의 의무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모델 4에서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이 가장 높았으며, F 검정결과 95% 신뢰수준에서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가졌다.

〈표 5〉 위계적 회귀분석 검정 결과

종속변수: 공식적 봉사 횟수								
변수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β	t	β	t	β	t	β	t
상수	1.972 (0.18)	10.952†	0.969 (0.363)	2.669†	0.696 (0.482)	1.444	0.572 (0.587)	.975
학년	-.013 (0.058)	-.172	.028 (0.053)	.398	.026 (0.053)	.373	.060 (0.052)	.883
성별 (남자=1)	.031 (0.15)	.410	.049 (0.131)	.708	-.014 (0.137)	-.197	-.034 (0.134)	-.483
종교 활동			.438 (0.095)	6.355†	.403 (0.100)	5.535†	.380 (0.101)	5.199†
가족 내 사회화 과정			.016 (0.070)	.225	-.081 (0.078)	-1.06	-.083 (0.078)	-1.072
사회 참여					.175 (0.094)	2.20*	.148 (0.092)	1.900*
개인 간 신뢰					.155 (0.096)	1.854*	.158 (0.098)	1.859*
공적기관 신뢰					-.071 (0.107)	-.945	-.090 (0.104)	-1.227
동정심							-.137 (0.085)	-1.902*
헌신							.255 (0.099)	3.470†
시민의 의무							-.052 (0.095)	-.689
통계량	R^2 = .001 F = .096 p = .908		R^2 = .191 F = 10.180 p = .000		R^2 = .241 F = 7.693 p = .000		R^2 = .295 F = 6.981 p = .000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1, ** p〈.05, † p〈.001

우선 통제변수에 관하여는, 모델 1에서 학년과 성별은 봉사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모델 2에서는 '종교 활동(β=0.438, p=.000)'은 공식적 봉사활동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가족 내의 사회화 과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델 3은 사회자본 하위요인인 '사회참여', '개인 간의 신뢰', '공식적 지관에 대한 신뢰'를 투입시킨 것으로, 그 결과 '사회 참여(β=0.175, p=.069)', '개인 간의 신뢰(β=0.155, p=.065)'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나,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 모델 4에서는 이 연구의 핵심인 공공봉사동기의 실질적인 봉사참여의 영향에 대한 모델의 결과를 보여준다. 독립변수인 공공서비스동기 중 '헌신'은 종속변수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β=0.255,

p=.001). 그러나 기대와 달리 '동정심'은 종속변수에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보였다(β=-0.137, p=.068). 그러나 '시민의 의무'는 통계적으로 종속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구가설 1-1(대학생의 동정심은 자원봉사활동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은 이 연구에서는 기각이 되었으며, 연구가설 1-2(대학생의 헌신은 자원봉사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이 연구에서는 채택이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연구가설 1-3(대학생의 시민의 의무는 자원봉사활동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은 기각 되었다.

V. 결 론

이 연구는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동기가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사회화 과정 요인, 사회자본 요인, 공공서비스동기 요인으로 나누어 자원봉사활동(참여정도)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학년)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 내의 사회화 과정'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교 활동'은 자원봉사활동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소희(2010), 송유석(2011)의 연구에서 종교활동은 자원봉사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맥락이 같다. 사화자본 요인의 '사회참여', '개인 간의 신뢰',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는 자원봉사활동과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다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동기 요인으로는 '동정심', '시민의 의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헌신'의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다정(2013), 송용차오(2016)의 연구에서 공공서비스동기의 하위요인은 자원봉사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맥락이 같다.

이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Perry & Wise(1990)는 공공봉사동기모형을 제시하면서 공공봉사동기 모형이 높을수록 공공분야에 근무하고자하는 동기가 높다고 말했다. 그 동기는 개인이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사회화 과정에서 얻어지는 가치관이나 신념체계가 공공조직이 국민에게 전달하는 핵심가치와 일치할 때 더욱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싶다는 논리이다. 이 연구에선 공공봉사동기모형에서 제시하는 사회화 과정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자본이 더욱 봉사동기의 횟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봉사동기의 실천적 영역에서 '개인 간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 역시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지금까지 공공봉

사동기모형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공공봉사동기모형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말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특히 '헌신'이라는 공공봉사동기의 하위 개념이 실질적인 봉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하였다. 이는 Perry, Hodeghem, & Wise(2008)가 말한 자기희생(Self-Sacrifice),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Motivation), 동정(Synthesis)이 봉사동기모형의 근본적 개념이라는 주장하였는데, 이 중에서 자기희생적 측면이 실질적인 동사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번 연구가 주는 실천적·정책적 함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다수의 비영리기관 은 현재 공공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공공 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영리조직은 자원봉사자의 인적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할 것인가는 실질적으로 풀어야할 조직 문제이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사회화 과정에서 종교 활동이 실질적인 봉사활동에 매우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왔다. 따라서 정책적 측면에서 종교 활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공공봉사동기 중 다른 하위개념 구성보다 '헌신'의 측면이 보다 실질적인 봉사활동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공공기관에 봉사활동 참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헌신'이라는 개인의 가치관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지원자를 모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함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공공서비스동기를 향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적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공공봉사동기의 측정에 관한 설문항을 '동정심', '헌신', '시민의 의무'의 세 개의 하위 개념으로 측정하였지만, 당초 공공봉사동기 설문항은 네 개의 하위개념으로 구성되며(Perry, 1996) 이번 연구에서는 '공공정책 결정에 대한 관심' 항목이 대학생들 대상으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설문항을 제외하였다. 만약 '정책참여' 항목을 측정하면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측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자료 수집을 위해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으나, 설문조사 방법은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내재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험설계 방법도 후속연구에서 기대된다. 셋째, 이와 더불어 조사 대상을 일부 지역(충칭직할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대학생으로 한정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전국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설명하기에는 한계성을 가진다.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 대학생 표본만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한국적 맥락에서 설명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후속연구에서는 중국대학생과 한국대학생 간의 비교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충칭지역에서 세 개 대학교의 전체 대학생을 대상을 모수로 선정하였지만, 표본의 추출에 있어서 무작위 표집방법을 활용하지 못하여 일반화에 한계성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폭 넓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봉사 단체 및 기관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로 한정하여 표집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다른 분야에서(비공식적 봉사) 활동하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에게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이 보완되어 공공서비스동기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더 폭넓고 깊은 설명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강정희. (2009).「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길곤·박치성(2010). 대학생의 직업선택동기와 공직동기.「행정논총」, 48(2): 339-368.

노상일. (2015).「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어촌공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태영. (2004). 지역 자원봉사활동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사회복지개발연구」, 10(2): 121-139.

설경란. (2002).「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 향후 지속성 예측에 관한 연구: 서울·경인지역 장애인복지관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용차오. (2016).「중국 공무원의 공공서비스동기가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유석. (2011).「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지준. (2015).「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21세기사.

신동국. (2017).「공공서비스동기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소라. (2015).「기업파티 만족도가 조직커뮤니케이션과 조직몰입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현주. (2008).「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형석. (2018).「공공서비스동기(PSM)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제주자치경찰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정호. (2015).「대학생의 봉사활동과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연구 : 대학유형의 사회봉사 지원역량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근주. (2005).「공공봉사동기와 공무원의 업무성과.「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1): 81-104.

이만식. (2010).「21세기 자원봉사관리 이론과 실제」, 학지사

이선주. (1996).「대학생의 활동에 관한 자원봉사 인식 및 태도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성록. (2001).「자원봉사행동에 대한 다차원적 동인의 영향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용순. (2007).「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낙균. (2018).「사회자본과 공공봉사동기의 관계 분석 :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소희. (2010).「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제단화. (2016).「파견관리자의 정치적 스킬과 문화지능이 현지직원들의 갈등과 침묵 및 제언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주영미. (2014).「우정사업본부 조직성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공공서비스동기, 직무불안정,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다정. (2013).「공공조직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서비스동기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高金金. (2014). 学生志愿服务动机功能理论的实证研究.「统计与决策」, 06: 111-113.

莫文琪. (2007). 社会体育指导员志愿服务动机、工作投入和志愿服务行为之间的关系.「运动」, 20: 1-3.

王昱. (2011).「大学生志愿服务意向与行为研究--基于计划行为理论的视角」, 西南交通大学硕士学位论文.

卓彩琴. (2007). 志愿服务动机的深层分析,「广东青年干部学院学报」, 3: 36-40.

Brewer, G. A. & Selden, S. C. (1998). Whistle Blowers in the Federal Civic Service: New Evidence of the Public Service Ethic.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8(3): 413-439.

Bright, L. (2008). Does Public Service Motivation Really Make a Difference on The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s of Public Employees?,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8(2): 149-166.

Clary, E. G., Snyder, M., Ridge, .D. Copeland, J., Stukas, A., Haugen, J., et al. (1998). Understanding and assessing the motivations of volunteers: A funct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6): 1516-1530.

Clerkin, R. M., Paynter, S. R., & Taylor, J. K. (2009). Public Service Motivation in Undergraduate Giving and: Volunteering Decisions. *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9(6): 675-698.

Crewson, P. E. (1995). A Comparative Analysis of Public and Private Sector Entrant Qualit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9: 628-639.

Crewson, P. E. (1997). Public Service Motivation: Building Empirical Evidence of Incident and Effect.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7(4): 499-518.

Fink, D. (1986). *Open country, Iowa: Rural women, tradition and chang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Fitch, R. T. (1987). Characteristics and motivations of college students volunteering for community service.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8(5): 424-431.

Frumkin, P. (2006). *Strategic giving: The art and science of giv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errard , M. (1981). Natural helping systems: Red Cross volunteers[J].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67-579.

Houston, D. (2005). Walking the walk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Public employees and charitable gifts of time, blood and money.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6(1): 67-86.

Manser, G. & Cass, R. H. (1976). *Gorden Manser & Rosemary Cass. Voluntarism at the cross roads*, New York: family Service Association of America.

Monroe, R. M. (1994). A fat lady in a corset: Altruism and social theor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4): 861-893.

Paker. (2008). An evolutionary account. Perspectives on[J]. *Psychological Science*, 149-172.

Perry, J. L., Brudney, J. L., Coursey, D., & Littlepage, L. (2008). What Drives Morally Committed Citizens? A Study of the Antecedent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8(3): 445-458.

Perry, J. L. (1996). Measuring Public Service Motivation: An assessment of construct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7(2): 181-197.

Perry, J. L. & Wise, L. (1990). The Motivational Bases of Public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0: 367-373.

Rainey, H. G. & Steinbauer, P. (1999). Galloping Elephants: Developing Elements of a Theory of Effective Government Organization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9(1): 1-32.

Sargeant, A., Ford, J. B., & West, D. C. (2005). Perceptual determinants of nonprofit giving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9(2): 156-165.

Smith, B., Shue, S., Vest, J. L., & Villarreal, J. (1999). *Philanthropy in communities of color*.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Snyder, M., & Omoto, A. M. (2008). Volunteerism: Social issues perspectives and social policy implications.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2(1): 1-36.

Vandenabeele, W. (2007). Toward a Theory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An Institutional approach. *Public Management Review*, 9: 545-556.

Seong-gin Moon, Mihye Seo & Ki-whan Kim. (2015). Effect of Motivation on Charitable Giving Practices: The Case of Korean American Immigrants. *Voluntas,* 26: 2645-2670.

Wright, B. E., & Pandey, S. K. (2008).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the assumption of person—Organization fit: Testing the mediating effect of value congruence. *Administration & Society*, 40(5): 502-521.

접수일(2021년 07월 14일)
수정일(2021년 08월 20일)
게재확정일(2021년 08월 24일)

〈첨 부〉

〈표 1〉 공공봉사동기 측정 문항

문항내용		문항	측정
공공 서비스 동기	동정심	1.1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
		1.2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어려움에서 헤쳐나 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별로 동정심을 느끼지 않는다	
		1.3 대부분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다	
		1.4 어려움으로 비탄에 빠져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다	
		1.5 나는 종종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다	
	헌신	1.6 많은 경우나 자신보다는 남을 우선시 하는 경우가 많다	
		1.7 나는 남을 돕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곤 한다	
		1.8 세상에 도움을 주는 일은 내 개인적인 성취보다도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	
		1.9. 사람들이 사회에서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환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의 의무	1.10 나는 사적 이익과 무관하게 내가 속한 공동체나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한다	
		1.11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실천은 나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다	
		1.12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실천은 시민의 의무이다	
		1.13 친하게 지내는 사람의 부탁이 기부나 봉사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다	
		1.14 세금감면이나 기타 경제적 혜택이 기부나 봉사결정의 중요한 요인이다	
		1.15 사업이나 개인적인 사회관계망 구축이 기부나 봉사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다	
		1.16 직장, 학교, 다른 소속단체의 요구가 기부나 봉사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다	

〈표 2〉 상관분석 결과

구분	M	S.D.	1	2	3	4	5	6	7	8	9	10	11
1.학년	2.83	1.13	1										
2.성별(남성='1')	0.29	0.45	.040	1									
3.종교 활동	1.40	0.63	-.089	-.041	1								
4.가족 내 사회화	3.63	0.86	-.135	-.068	-.069	1							
5.사회참여	2.34	0.73	.000	.296***	.264***	.222**	1						
6.개인 간 신뢰	3.73	0.76	-.030	-.004	-.120	.44***	.290***	1					
7.공적기관 신뢰	4.09	0.61	.100	-.053	.027	.245***	.119	.426***	1				
8.동정심	3.92	0.73	.021	-.018	-.144	.235**	-.051	.216**	.112	1			
9.헌신	3.38	0.65	-.135	.097	.000	.241***	.150*	.245***	.166*	.327***	1		
10.시민의 의무	3.65	0.70	-.063	.061	-.261**	.326***	.089	.405***	.181*	.109	.271**	1	
11.공식적 봉사	1.96	0.87	-.012	.030	.433***	-.022	.296***	.091	.010	-.115	.211**	-.069	1

주) *p〈.05, **p〈.01, ***p〈.001

〈국문초록〉

공공서비스동기가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 중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중국 대학생의 공공서비스동기와 자원봉사참여의 유의미한 관련성 여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개념들 간의 이론적 관계가 가설화되었으며, 중국 충칭직할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요 대학교 (충칭대학교, 충칭사범대학교, 충칭의과대학교)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공공서비스동기와 자원봉사참여간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회귀분석모델을 통해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통제요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사회자본 요인, 종교 활동, 가족 내의 사회화과정을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종교 활동, 공공서비스동기 요인(헌신)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으로 공공서비스이론 연구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이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공공서비스동기, 사회자본, 자원봉사활동

담효니(谭晓妮): 인하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석사를 이수하고 현재 중국 충칭에 거주하고 있다(kyunim2315@outlook.com).

류근필(柳瑾泌): 뉴욕주립대학교(SUNY-Alban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인사행정 및 인적자원관리(HRD)이다. 최근연구로는 "Trust in supervisors as a moderating rol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pervisors' performance-feedback and perceived fairness of performance appraisal"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2020, 주저자) 등이 있다(gpryu@jnu.ac.kr).

문성진(文性晉): 콜로라도주립대학(University of Colorado at Denver)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환경정책, 이민자와 다문화, 그리고 정책철학이다. 최근 연구로는 "Mapping the policy networks of the Korean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y: The case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ers"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2021), 환경규제는 자발적일 수 없는가? 자율환경협약의 논리와 효과성(한국공공관리학보, 2019)등이 있다(moons@inha.ac.kr).